

탁월한 사명감으로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모범

광주소방 빛낸 '4월의 우수 소방인' 선정...광주시장 표창 수여

송한규·박선홍·한영길·오정균·임효정 소방관 '최다 현장출동'

송한규·박선홍·한영길 소방위와 오정균·임효정 소방장이 '4월의 우수 광주 소방인'으로 선정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5일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소방을 빛낸 4월의 우수 소방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4월 우수 소방인'에는 119특수대응단 송한규 소방위, 북부소방서 박선홍·한영길 소방위, 남부소방서 오정균 소방장, 광산소방서 임효정 소방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조, 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된 소방인들이다.

송한규 소방위는 지난달 비닐밭에 식사 도중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기도 폐쇄를 의심, 곧바로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를 실시해 위급한 순간 생명을 구했다.

또 각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을 보여준 소방인들도 선정했다. 구조출동 분야에서는 박선홍 소방위, 구급출동 분야에서는 한영길 소방위와 임효정 소방장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오정균 소방장 등이다.

이들은 2024년 9월~2025년 2월 기준 소방활동 분석 결과, 분야별 최다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로,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우수 소방인들에게는 광주광역시 표창과 포상금, 배지가 주어졌다.



송한규·박선홍·한영길 소방위와 오정균·임효정 소방장이 '4월의 우수 광주 소방인'으로 선정됐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지역사회사의 영웅이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소방인들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위기시대, 배움 공동체 리더십 역할

광주경총, 유명만 교수 초청 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지식생태학자 한양대학교 유명만 교수를 초청해 '다른 사람의 성공지도에는 나의 성장지도가 없다' 주제 강연의 제1683회 금요초점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명만 교수는 메가스터디 사외이사,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외이사, 사색의 향기 문화원장,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지식생태학', '용기', '곡선으로 승부하라' 등 많은 저서를 발간했다.

이날 강연에서 유 교수는 배움 공동체의 리더십에 대해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판



세전쟁과 국내 조기 대선 등 위기일수록 창조적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강연이 국내의 경제위기 시점에 회원 기업들이 독립적 성취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인 자기계발과 고정관념을 깬 역할상. 생각의 물구나무서기를 통한 상상력과 창조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브런딩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시중앙동민간사회안전망은 최근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실천의 하나로 손수 만든 빵 200개를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광양중앙동민간사회안전망, 나눔실천 '훈훈'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빵 200개 전달

광양시중앙동민간사회안전망은 최근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실천의 하나로 손수 만든 빵 200개를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수근 민간사회안전망 회장은 "회원들과 손수

빵을 만들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2020년부터 빵을 손수 만들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된 빵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본보, 광주·전남기자협회 체육대회 '종합 3위'

양설란 기자 팔씨름 여자부 우승

광남일보가 2025년 광주·전남기자협회 봄철 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올랐다.

26일 호남대학교 중앙잔디구장에서 광남일보를 비롯한 18개 회원사 회원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체육대회는 축구, 여자사 승부차기, 팔씨름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다.

언론인 가족들도 여러 종목에 참여하며 화합과 친목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올해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팔씨름 경기에서는 본보 양설란 기자가 여자부 우승을 거머쥐었다.

여기에 본보는 여자사 승부차기에서 준결승에 오르면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올해 체육대회는 푸짐한 경품과 함께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퍼스널컬러 진단,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플로라이드 사진 촬영 버스 등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도, 인공태양에너지 글로벌 거점 도약 공감대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초청 포럼...추진 방향 공유

전남도는 최근 도청 왕인실에서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사진)을 초청해 '미래 청정 에너지의 계임체인자, 핵융합에너지' 주제 포럼을 열어 인공태양에너지 글로벌 거점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남도 본청과 시군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미래 에너지 전환 흐름과 인공태양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영국 원장은 특강에서 "핵융합에너지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 없는 청정에너지로, 연료가 사실상 무한하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미래 에너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공동연구와 한국 핵융합장



치(K-STAR) 실험장치 운영을 통해 세계적 핵융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핵융합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전남은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600여전력 연관 기업이 집적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뛰어난 정주환경과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향후 인공태양 연구시설 국가공모 유치와 핵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PEOPLE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서구, '건강 100세' 실현 한걸음

광주 서구가 슬로우조깅단을 운영하며 '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공원에서 슬로우조깅단 합동 조깅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상무팀·품앗팀 주민 60여명이 참여해 슬로우조깅으로 1시간 가량 땀을 흘렸다.

서구가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위해 추진하는 슬로우조깅은 시속 3~6km의 느린 속도로 달리는 운동이다.

슬로우조깅은 걷기보다 강하고 일반적인 조깅보다 부상 위험이 적다. 고령자나 운동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걷기와 달리기와 장점만 모은 대체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혼자 할 땐 작심삼일이었지만 함께 뛰니 꾸준히 운동하게 된다", "느린 속도라도 체력이 확실하게 좋아졌다" 등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얘기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슬로우조깅은 속도는 느리지만 호흡을 맞춰 달리면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온기까지 함께 커진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희망의 트랙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귀어학교, 어업인 20명 배출 12기 수료식...교육과정 수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강진에 있는 전남귀어학교에서 제12기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 20명의 예비 어업인을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시작된 제12기 교육과정은 전남의 어업과 어촌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어선·양식어업 분야뿐만 아니라 수산가공·유통, 어촌비즈니스 분야까지 포함해 운영됐다.

수료생 가운데 희망자의 경우 5월 중 2주간의 실습 위주 보수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시 교육비 4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귀어학교에서 제공한 정보와 현장 경험이 귀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납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염염,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 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1일)

48년생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60년생 일을 급히 결정하면 기회를 놓친다
72년생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재물이 따른다
84년생 말을 반으로 줄이라
96년생 차량으로 여행은 피하라

51년생 배우자와 상의하면 무난하다
63년생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
75년생 귀하의 말에 상처를 입는다
87년생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이 생기는 날
99년생 소득과 수입이 생긴다

54년생 물에 충돌이 예상되니 여행 주의
66년생 부동산은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78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90년생 원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날

57년생 어렵게 이룬 성과일수록 귀하다
69년생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인다
81년생 금전 융통이 순조로운 날
93년생 입이 화근 되니 남의 말을 삼가라

49년생 금전으로 지인들이 멀어지는 날
61년생 부동산 거래에 문구 작성에 주의
73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된다
85년생 문서상의 많은 이익이 생기는 날
97년생 방향한 생활로 피해를 주게 된다

52년생 집안에 다름이 있을 것
64년생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호기를 잡는다
76년생 자녀 근심은 약간 해결되리라
88년생 남자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

55년생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67년생 정도에 넘치는 이익은 금물
79년생 움직일수록 금전 지출 많은 날
91년생 연인 생기자만 흡족할수 없다

58년생 배우자 모르는 즐거움이 생기는 날
70년생 돈과 관계된 일들이 어려워진다
82년생 거래에 다소 충돌이 예상 된다
94년생 뜻밖의 일로 심심이 고달픈 날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